



**이 대통령 “마이스터고는 새로운 도전”**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서울 개포동 수도전기공고에서 열린 21개 마이스터고 전국 동시 개교식에 참석해 학교 동판을 전달받은 학생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마이스터고는 21세기를 헤쳐 갈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기술명장 육성’을 목표로 한 산학연계형 직업 전문 중등교육기관으로, 이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21개교가 문을 열었다.

박민규 기자

■ 전문계고 '소수정예화'

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고용전략 회의에서 보고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691개 인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400개로 재편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전문계고 졸업생의 약 72%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이다. 하지만 전문계고를 300개 가까이 없앨 경우 고교 직업교육 기반이 무너져 산업 기초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학 진학보다 전문기능인력 양성에 초점

◇전문계고 '소수정예화' =올해 21곳이 문을 연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비 전액 면제 혜택 등으로 신입생 입학 경쟁률이 크게 치솟았다. 교과부는 오는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를 5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과의 채용 연계에 위해 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 등 3개 국립 마이스터고는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기존 진학 위주의 특성화고 168곳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는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바꾸고 숫자도 35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대신 농·산·어촌에 위치해 학생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전문계고 291곳을 일반계고로 전환하거나 인근 거점 특성화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성화고 지원비로 내년에 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

내년 지원비 1,000억 투입  
취업률 높이기 유인책 병행  
학교수 300개 가까이 줄여  
산업인력 수급 차질 우려도

기 위한 유인책도 추진한다. 진학 중심의 전문계고 교육과정을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재편하는 한편 국·영·수 중심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하고 채용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결과로는 오는 2012년부터 정부 지원과 연계된다.

전문계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하면 정원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거점 국립대로 확대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도 전문계고를 졸업한 취업자에게 우선

전문계고 개편안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적으로 지원한다.

◇산업 기초인력 수급 차질 우려도 =일선 학교와 직업교육 전문가들은 취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수를 300개 가까이 줄일 경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인재를 양성해온 전문계고의 기반이 급격히 무너져 산업 기초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손수혁 전국공업고교장협의회장

(신라공업고 교장)은 "전 산업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문계고가 운영돼 왔는데 학생이 없다고 무조건 통폐합시키는 것은 문제"라면서 "산업인력이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수입하는 마당에 이렇게 학교 수를 줄이면 앞으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삼곤 한국직업교육학회장(부경대 교수)은 "최근 1년 새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전문계고 10여곳이 문을 닫았다"면서 "숫자를 줄이고 나면 다시 늘리기 힘들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 욕구도 하루 아침에 바뀌기 어려운 만큼 전문계고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되 정부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전문계 고교를 명문 직업교육기관으로”

#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 보고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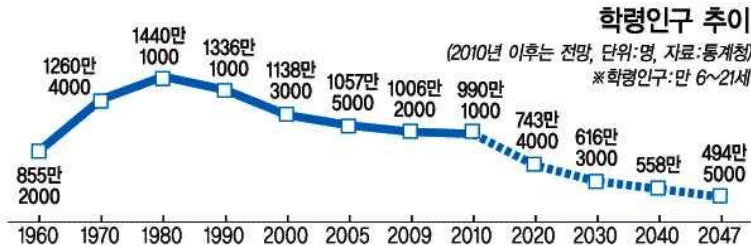


- 1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선도모델로 정착**
- 2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 확대**
- 3 **종합고 등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 4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5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 6 **재정지원 및 평가관리제도 마련**



# 학령인구 1000만명선 붕괴

<초·중·고·대학생>



## 46년 만에... 저출산 여파 2015년엔 800만명대로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학령인구가 46년 만에 1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통계청 추계인구에 따르면 올해 학령인구는 99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가 100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64년의 992만5000명 이후 처음이다.

학령인구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인구로, 연령대는 만 6~21세까지다.

1960년 855만2000명이던 학령인구는 65년 1040만3000명으로 1000만명대를 돌파한 뒤 80년에는 1440만1000명으로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3년에는 10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학령인구의 급감 추세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

녀수인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4명이었으나 2004년(올해 만 6세)에는 1.15명으로까지 떨어졌다.

저출산 여파로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800만명대(872만8000명)로 내려앉고, 2022년에는 600만명대(699만5000명)로 추계된다. 또 2047년에는 494만5000명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학령인 만 6~11세 인구는 2002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어 올해 329만7000명으로 추계됐다. 중학교 학령인 만 12~14세는 2008년부터 감소해 올해는 196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령인 만 15~17세는 올해 206만9000명을 기점으로 내년부터 감소세로 반전되며 대학교 학령인 18~21세는 2014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지선 기자

# 전문계고 학생수 절반으로 뚝! 추진배경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서비스

통계간행물 유초중등통계 대학통계 취업통계 국제통계

개황 학교급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제별 학교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자유, 창의, 다양성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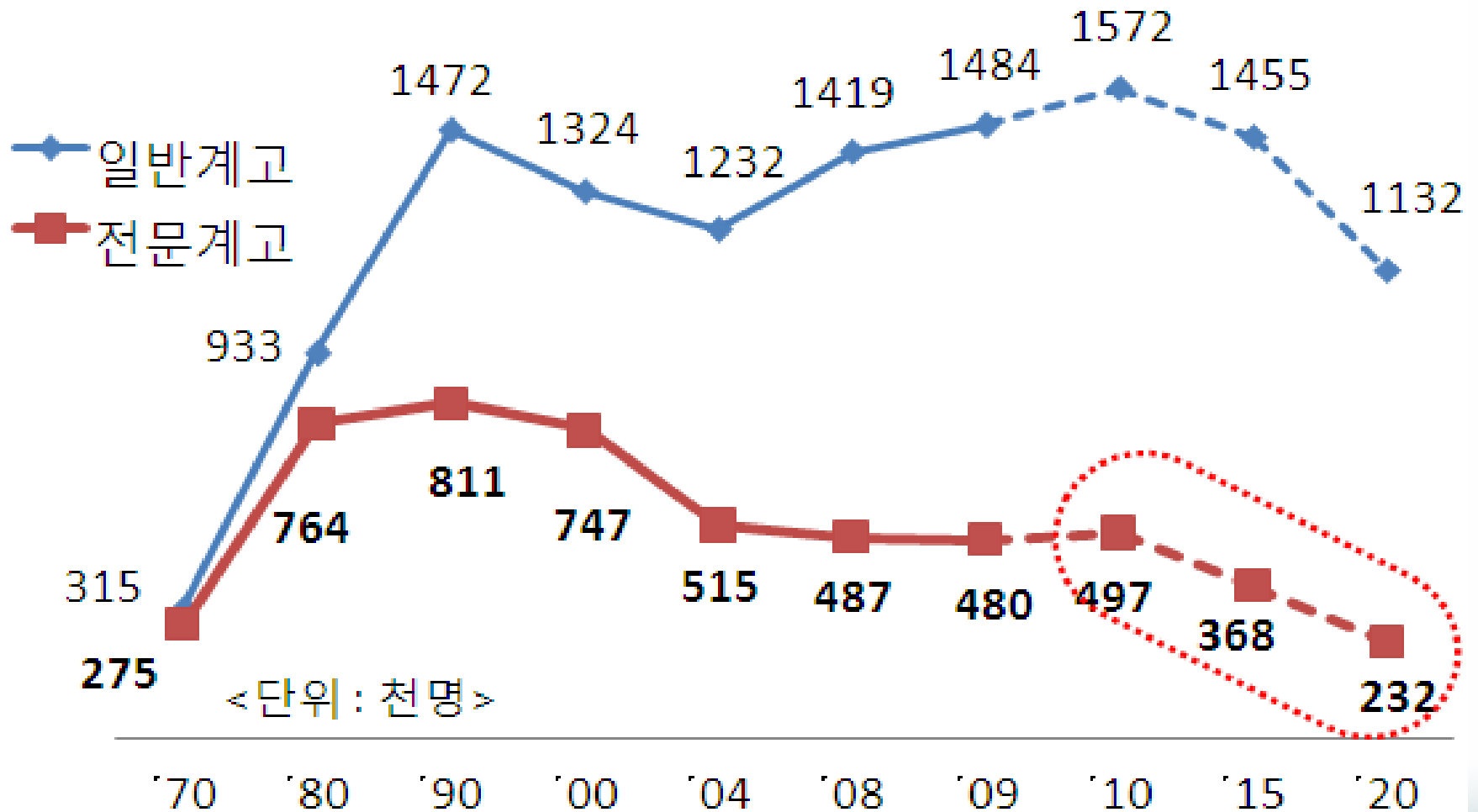
유초중등통계

고등학교 연도별 학생수

연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합계
1999	1,399,389	851,751	2,251,140
2000	1,324,482	746,986	2,071,468
2001	1,259,975	651,198	1,911,173
2002	1,220,146	575,363	1,795,509
2003	1,224,452	542,077	1,766,529
2004	1,232,010	514,550	1,746,560
2005	1,259,792	503,104	1,762,896
2006	1,281,508	494,349	1,775,857
2007	1,347,363	494,011	1,841,374
2008	1,419,486	487,492	1,906,978
2009	1,484,966	480,826	1,965,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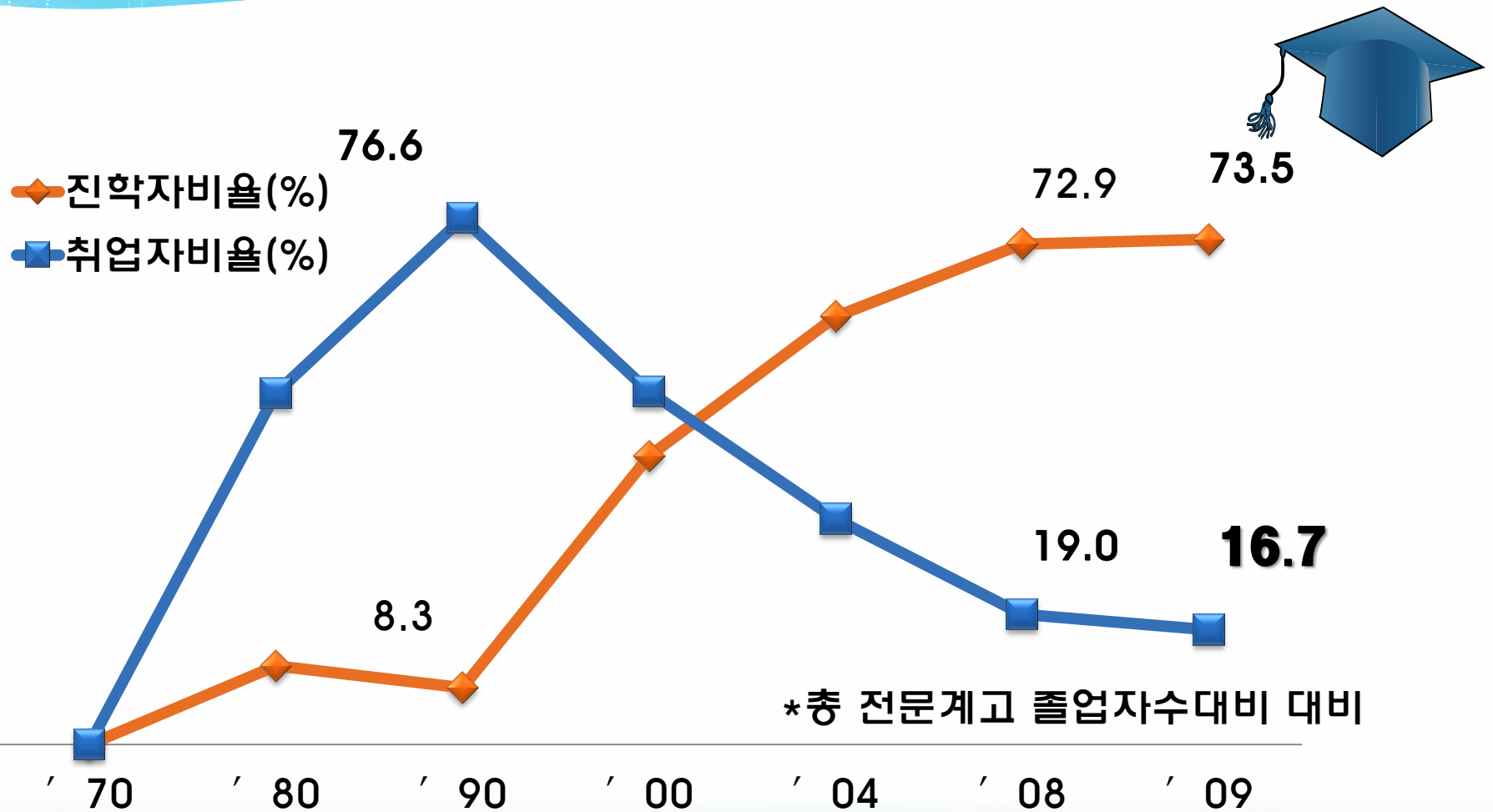
연도	일반계고	전문계고
1999	1,399,389	851,751
2000	1,324,482	746,986
2001	1,259,975	651,198
2002	1,220,146	575,363
2003	1,224,452	542,077
2004	1,232,010	514,550
2005	1,259,792	503,104
2006	1,281,508	494,349
2007	1,347,363	494,011
2008	1,419,486	487,492
2009	1,484,966	480,826

# 전문계고 학생 절반 급감 추진배경



# 대학정원 확대, 학벌중심사회

추진배경



출처) KEDI 교육통계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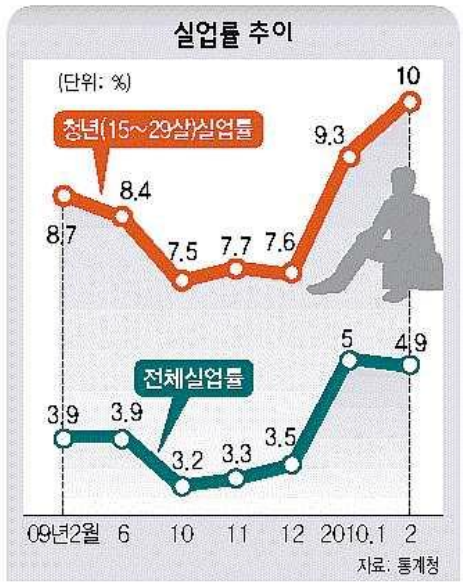
# 청년실업률 10%

## 10년만에 최고치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10%를 돌파했다. 전체 실업자도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2월 청년실업률은 10.0%로 두자릿수로 치솟았다. 이는 2000년 2월(10.1%) 이후 최고치다. 15~29살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4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1000명이 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취업문이 급격하게 좁아졌던 2009년 2월에 견줘서도 증가한 것이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이 어려워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2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8만4000명) 증가했다. 1999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9%로 1년 전에 견줘 1%포인트 높아졌다. 실업자 수 역시 116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4000명이 늘었다. 1월 5%에 이어 실업률 고공행진이 두달 연속 이어진 셈이다. 정부는 1월의 높은 실업률을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되풀이했다.

2월의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2만5000명 늘어났다. 통계청은 수출 증대 등으로 제조업과 운수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별로 취업자 증감을 보면, 50대만 큰 폭으로 증가하고 20~40대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 서울대생 54%가 취업걱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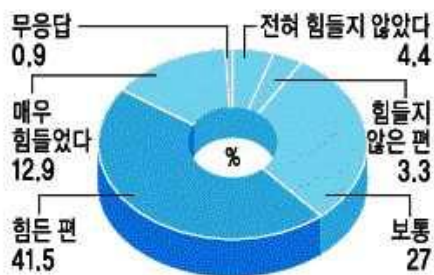
대학문화원, 작년 졸업예정자 3055명 설문...“진로문제로 힘들다” 절반 넘어

청년실업이 10% 대를 웃도는 가운데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생조차 2명 중 1명이 진로 문제에 “힘들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발간한 ‘2006~2009년 대학생활 의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이 지난해 졸업예정자 3938명의 77.6%인 30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진로 문제에 대해 ‘힘든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41.5%, ‘매우 힘들다’는 12.9%로, 총 54.4%가 진로 문제에 어려움을

진로문제가 얼마나 힘들게 했나?

\*2009년 졸업예정자 3055명 대상



자료: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25%가 ‘내가 바라는 직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해 이미 선택한 진로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드러냈다.

진로를 확립한 시기에 대해서는 사회 진출을 코앞에 둔 4학년 때 한 학생들이 많았다. 응답자의 38.3%가 4학년 때 진로를 확립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대학 3학년 21.8% ▷대입 후 전공이나 과정 선택시기 14.2% ▷중·고교 시절 11.5% ▷대학 입학 준비시기 7.1% 등이 그 뒤

를 이었다.

▶관련기사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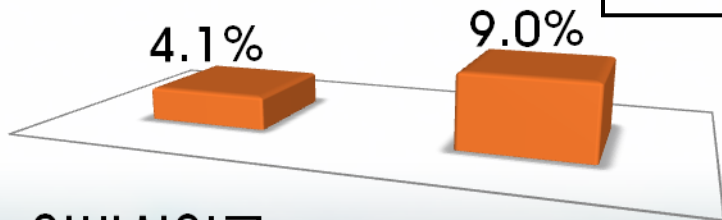
강명구 서울대 기초연구원장은 “서울대 입학이 곧 천하를 얻는 것이라는 사회의 일반적인 믿음 때문에 서울대생들은 재학 4년 내내 혹은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 한다”며 “진로를 준비할 때도 ‘서울대생’이라는 주변의 기대감 탓에 번듯한 직장이 아니면 취업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는데, 발상의 전환이나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 인력 미스매치의 문제



산업계와  
밀착된 직업교육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일반실업률

청년실업률 (통계청, 2010.3월)

전문계고 졸  
수준의 기업  
구인난 문제


대학 진학자의  
증가로 눈높이에  
맞은 일자리 부족

청년 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높은 수준



일력 수급  
불일치  
해소

# 직업교육 선진화 추진방향



선취업  
후진학

## 선취업 후진학 여건조성

산업계 정부부처 공동으로  
“선취업 후진학 여건 조성”



전문계고  
체제개편

전문계고 전체를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기관



# 직업교육 선진화 중점 과제





# 전문계고 체제개편



## 2010 현재

마이스터고  
(21개교)

특수목적고  
(40개교)

특성화고  
(168개교)

(일반)전문계고  
(275개교)

종합고  
(187개교)

**691**개교



## 2015년 개편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

일반계고 등  
(291개교)

**400**개교

# 마이스터高 교장, 기업인들이 맡았다

## “30년 산업현장 노하우로 맞춤형 인재 양성할 것”

주요기업에서 임원을 지낸 기업인들이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변신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차 교장공모 결과 3개 마이스터고에 민간기업 임원 출신이 교장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립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에는 최돈호 LG전자 상무(55)가, 부산자동차고등학교에 이승희 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58),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에 장헌정 풍산금속 기술교문(54)이 각각 임명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강희태 전 한국전력 배전운영처장(56)을 수도권기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했다. 이들 4개 마이스터고 교장 임용자들은 교사 자격증이나 교육계 경력이 전혀 없지만 30년 이상의 산업 현장 노하우를 학교 운영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최돈호 교장은 1976년 LG전자에 입사해 35년 동안 산업현장을 누볐다. 한국통신학회 이사와 구미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지냈다. 최 교장은 “마이스터고로 다시 태어나는 전통의 명문고 구미전자공고에 교장으로 가게 돼 영광스럽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산업체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승희 교장은 1977년 삼성그룹에 들어가 종합건설과 그룹 비서실, 전자 반도체 부문 등에서 인사담당으로 일했다. 1995년 삼성이 그룹 핵심인재를 골라 ‘21세기 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자동차 사업 진출 태스크포스(TF)를 꾸리자 인사팀장으로 참여했고 삼성차가 프랑스 르노에 인수될 때 삼성으로 복귀할 기회가 있음에도 잔류했다. “평의원 시절부터 부사장까지 32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 교장은 “인사



강희태 교장 이승희 교장 장헌정 교장 최돈호 교장

가 결국 사람을 잘 키우고 활용하는 것인 만큼 마이스터고에서도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헌정 교장은 1979년 풍산금속에 입사해 온산공장 기획실장, 부평공장 공장장을 거쳤다. 장 교장은 “공장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으로 일하며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었다”며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희 교과부학교자율화추진관은 “기업 임원 출신 교장들이 전문지식을 토대로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용 기자 redael@hankyung.com

### ◆마이스터고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고교에서 충실한 직업훈련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해 사회에서 명장(Meister)으로 우대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학교다.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가 없으며 군복무시 특기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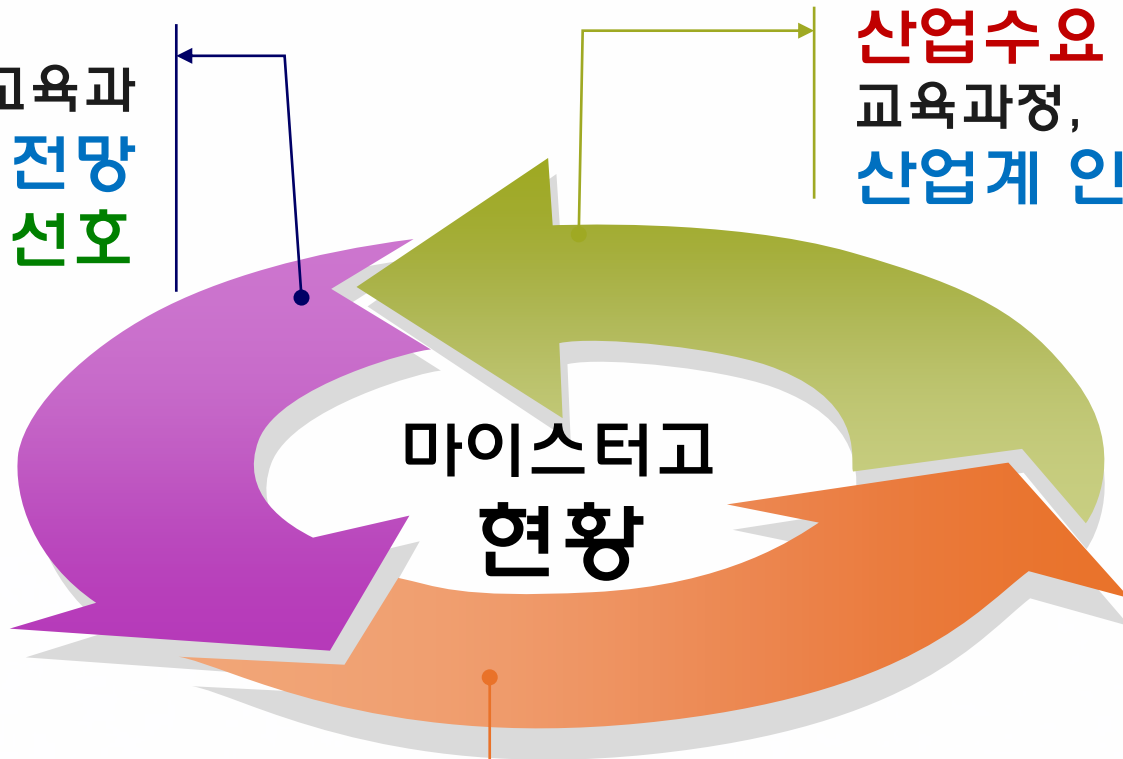
# 현황

##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선도모델 정착



현장 맞춤형 교육과  
안정적인 취업전망  
학생 학부모 선호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산업계 인사 교장 채용



산업계와 MOU체결  
협약업체의 기자재 기증,  
연수제공 등 지원확대

# 추진 방안

## 마이스터고를 통한 취업 선도모델 정착

**\* 구미전자고**  
LG이노텍과 연 100명  
채용약정  
LG디스플레이  
LG전자로 확대 추진





# 서울 전문계고 학생 數 10년새 반토막

95년 이후 매년 감소... “일반고 선호·취업률 하락 여파”

서울 지역 전문계고(구 실업고)의 총 학생 수가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이 발간한 ‘2009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계고 총 학생수는 6만1,472명으로 10년 전인 1999년(14만4,188명)에 비해 8만2,716명(57.37%)이나 감소했다. 지난달 마감한 2010학년도 전문계고 신입생 모집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1.16 대 1(2009학년도 1.2 대 1)에 그쳐 전문계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 전문계고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때는 95년으로 무려 19만 7,334명에 달했다. ‘1985~2009년 서울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문계고

학생 수는 95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해마다 줄어 들어 96년 19만6,831명, 98년 18만 195명, 2000년 11만 7,384명, 2002년 8만1,598명, 2004년 7만2,409명, 2006년 6만8,725명, 2008년 6만4,279명 등으로 집계됐다.

반면 일반고의 총 학생 수는 99년 35만 8,908명에서 2008년 29만 7,663명으로 약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 2006년(28만4,29명)부터 2008년까지는 소폭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계고의 교원 수도 96~97년 7,3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에는 4,929명으로 줄어 85년 이후 처음으로 5,000명 이하로 내려갔



다. 다만 학교 수는 99년 79개에서 지난해 76개로 3개 감소하는 데 그쳤다. 대신 대부분의 학교가 입학 정원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학교는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년간 전문계고의 학생수가 급격히 준 이유는 경기 불황에 따른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하락과 일반

고 선호 경향이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전문고가 학생 정원 확보나 취업 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 (기피 현상의 심화라기보다는) 일선 학교들이 학생 수요를 예측해 미리 구조 조정을 해온 것으로 해석해 달라”고 설명했다.



# 서울여상 “취업·대학진학 두토끼 잡는다”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울여상 입구에 펼침막이 내걸려 있었다. 이 학교 3학년 김아라 학생이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경영학부에 합격한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다. 올해 개교 83주년을 맞은 서울여상이 서울대 합격자를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4월쯤이면 '취업을 3년 연속 1위'라는 펼침막으로 바뀔 것이다. 경제위기 여파로 여전히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서울여상 3학년 학생들의 취업은 순조롭기 때문이다.

올 2월 서울여상 졸업생의 60.1%가 취업했다. 국내 전문계고 가운데 1위다. 취업한 144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해 취업희망자 대비 취업률이 99.3%에 달했다. 올 3학년 취업희망자 154명 중 115명(73%)이 이미 직장을 구했다. 지난해 이맘때 67%가 취업했던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다. 평균 연봉도 2,064만원에서 2,112만원으로 50만원가량 올랐다. 삼성증권 10명, 굿모닝신한·미래에셋증권 각 5명, 한미약품 4명 등 115명 중 대기업 취업자가 절반가량이다. 이충우 특성화담당 부장교사는 “내년 1월이면 100%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서울여상 졸업생들을 선호하는 것은 탄탄한 실무교육을 통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에 입사할 예정인 조효분 학생은 “학교에

3학년생 70% 취업 확정 ‘탄탄한 실무교육 결실’  
개교 83년만에 서울대 합격생도 나와 “기쁨 두배”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뒷줄 왼쪽 두번째)과 이 학교 개교 이후 서울대 첫 합격자인 김아라 “ ” (첫번째)양 등 학생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 국제무역사 등 전문자격증 취득 기회를 주고, 졸업생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동기부여를 많이 해준 것이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여상 학생들은 올해에만 증권투자상담사 16명, 국제무역사 18명, MOS 마스터 12명 등 52명이 고급 자격증을 땀다.

서울여상 신입생들이 처음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입학하는 것은 아니다. 현 3학년의 경우 2007년 입학 당시 21명이 취업을 원했고, 141명은 진학 희망자(95명은 미결정)였다. 그러나 올

해 취업 170명, 진학 76명으로 뒤바뀌었다. 학교의 꼼꼼한 진로지도와 특성화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이다.

다른 전문계고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졸업생의 30%가량은 대학에 진학한다. 지난해 대학 진학 희망자 94명 중 81명이 합격했다. 고려대 2명, 연세대 1명, 성균관대 10명 등 상위권 대학에도 많이 보냈다. 최근 끝난 수시모집에서는 서울대, 숙명여대, 춘천교대에 각 1명씩 합격했다.

서울여상은 1학년 때는 학과 구분 없이 공통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학년 때 국제통상·금융정보·인터넷비즈니스과로 나누는데, 인터넷비즈니스과가 진학반 역할을 한다. 인터넷비즈니스과는 국·영·수 등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서울대 진학이 확정된 김아라 학생은 “인문계고에 비해 국영수 과목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고,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어문계열에 지원할 계획인 심정화 학생은 “수준별 이동학습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에만 79개 기관 2,300여명이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전문계고교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지만 서울여상도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지원자 감소, 신입생 평균 성적 하락 등 어느 전문계고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2004년 국제통상·금융정보 특성화고로 지정돼 취업과 대학 진학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2006년 상위 27%이던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이 내년 신입생의 경우 16% 이하다.

한상국 교장은 “졸업생들의 결과를 보고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입학 성적이 좋으니 성과도 나아지는 선순환 구조인 셈”이라면서 “전문계고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좋은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현황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 확대



특성화고  
특레지원 확대

진학위주  
운영

특레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공적인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대부분 진학  
위주로 운영(취업률 18.8%)

교육청  
지원형  
(63개교)

2010년 371억원(특성화학과 201개교 지원포함)  
지역산업 인력 양성

정부부처  
연계형  
(105개교)

5부 2청, 2010년 354억원, 기간산업인력양  
\* 농식품부(자영농어업), 국토부(선원) 등

# 추진방안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로 개편확대

## 특성화 고등학교 개편방안



# 현황 종합고 등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 종합고등학교

인문반/직업반 함께 운영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화  
전문 직업교육 실시 한계

## 종합고 등 현황

## 일반전문계고

소규모학교  
대학진학 위주 운영  
산업계 연계 미흡

\* 학생수 200명 미만  
80개교

\* 취업률(10%)  
전문교원 배치에 한계



#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 방안





#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 방안



**전문계 교원**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



거점 특성화고 내 직업교육 강화  
(기숙형공립고 지정)



# 추진방향 **종합고 등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 소규모 학교 통폐합

## 교원 재배치

소규모 전문계고 직업수요  
**거점 특성화고**로 흡수

## 교원의 전공전환

공립: 거점 특성화고로 **재배치**  
사립: **공립교원 특채시 정원추가** 배정

유관분야 **부전공 및 복수전공**  
**특별연수 지원확대**(연간 1,000명)

# 직업기초능력 산업계 수요 반영 교육과정 운영

## 직업기초 능력평가 도입

\*의사소통  
수리활용  
정보활용  
문제해결

관계부처(교과부,지경부,노동부,중기청)  
및 산업계(대한상의 등) 공동으로  
평가체제 마련(문항개발 2010년)

평가결과를 학교정보 공시에 포함  
(2012년~)

직업기초능력 평가 준비를 위한  
교사연수 및 연구학교 운영  
(2010년~)

# 전문 기술교육 산업계 수요 반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개편 및  
산학겸임교사 채용 확대





# 후진학 체제구축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재직자  
전형

재직 경험만으로 대학에 가는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확대

장학  
사업

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사업  
**특성화고 취업자** 우선 지원 고려

학자금

근로자 학자금 대부사업  
**특성화고 졸업자** 적용 확대

# 학교내 취업지원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 취업기능강화사업 2011에서 2015년까지 지원연장
- \* 200개교: 학교당 1억원, 취업캠프, 외부강연, 현장체험 등으로 취업마인드 제고

## 산학연계 기능 확충

- 산학협력 코디네이터(교과부)
  - \* 101억원, 1,026명 채용지원
- 취업지원관(노동부)
  - \* 25억원, 50명 전문가 수준의 직업 상담사 등 지원

# 졸업자 취업촉진 **선취업 후진학 체제 구축**



## 청년취업인턴제(전문인턴제) 확대

- 청년취업인턴제에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포함**
- \* 인턴기간(6개월, 80만원) 지원, 정규직 전환 시 연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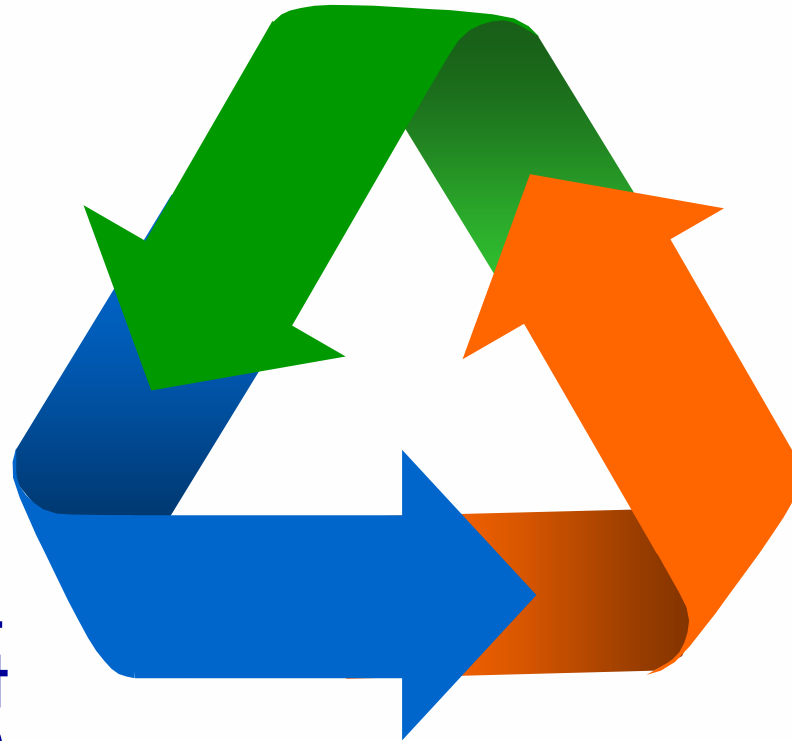
## 기능인재 추천제 확대

- **기능인재 추천제 시도교육청, 지자체 확대**
- \* 경기도교육청 2008년 10급 기능직 채용시 50%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

# 전문계고 체제개편 예산지원



특성화고 개편·육성 지원  
(490억원)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  
(연간200억원)

교사 부전공  
복수전공 지원  
(연간 40억원)



# 특성화고 개편, 육성 지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성화고 수		168 개교	275 개교	295 개교	315 개교	335 개교	350 개교
정부 부처	학교수 (개교)	105	115	125	135	145	150
	예산 (억원)	354	“부처별 소관 특성화고 예산 확보”				
교육청	학교수 (개교)	63	160	170	180	190	200
	예산 (억원)	371	611	661	711	470	490

# 학교 평가·관리제도 마련



## 1 마이스터고 재인증 시스템

1

마이스터고 개교 후 3년 경과 시  
취업률, 교육과정 등의 요건 미충족 시  
**교장교체**, **지원사업 삭감**, **지정취소**

2

## 특성화고 지정해제 제도 마련

전국단위 특성화고 공통기준 마련(취업률, 산업계 연계조건 등) 및  
 **시도교육청의 정기평가**를 거쳐  
**요건 미충족 시 지정해제** 조치

고맙습니다!